



안데스에서 만난 선교의 얼굴

지난 6월 미국에서 지내고 있는 동료 사제와 함께 페루에서 선교하시는 신부님을 방문하였다. 리마를 지나 쿠스코와 안데스 산맥의 높은 도시들을 거쳐 도착한 그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라기보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남미의 교회와 선교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바라보는 시간이었다. 나는 외부인의 눈으로 그곳을 바라보았지만 동시에 사제로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교회와 선교사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사제관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고산병 약과 산소통이었다. 해발 3,000미터가 넘는 땅에서 사목한다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말이 아니었다. 직접 그곳에서 지내 보니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숨은 짧아지고, 머리는 둔해지고, 걸음 하나도 평소 같지 않았다. 그런데 그곳에서 선교하는 신부님의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밝았다. 몸은 고단해 보여도 마음은 꺾이지 않아 보였다. 고산의 공기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면, 아마 복음을 전하려는 사제의 열정일 것이다.

페루의 가톨릭 교회는 오랜 시간 그 땅의 기억과 함께 숨 쉬어 온 교회였다. 그곳에서는 토착화, 곧 *inculturación*이라는 말이 책 속의 개념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었다.

사람들은 산과 땅, 조상과 자연을 기억했다. 안데스 사람들에게 땅은 단순한 흙이 아니었다. 생명을 품고 길러 주는 어머니, 곧 Pachamama의 기억이 그 안에 있었다. 교회는 그 기억을 무조건 지워 버리지만은 않았다. 잘못된 것은 정화하고, 참된 갈망은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해석해 왔다. 땅의 어머니를 향하던 마음은 성모님을 향한 깊은 신심 안에서 새롭게 자리를 잡기도 했다. 자연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던 마음은 이제 성모님의 보호를 청하는 기도과 함께 복음 안에서 다시 해석되었다. 그 과정은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 한 백성이 자기 언어와 기억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가는 긴 여정처럼 보였다.

쿠스코에는 특별한 그리스도 신심도 있었다. 사람들은 흑갈색의 십자가상, 곧 *Señor de los Temblores*를 깊이 공경한다. 케추아어로는 다정하게 *Taytacha*,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 지진이 많았던 그 땅에서 사람들은 흔들리는 대지 한가운데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붙들었다. 전례적으로는 성지주일과 성목요일의 행렬에 고유한 의미가 분별하지만, 쿠스코의 대중 신심 안에서는 성주간 월요일, 곧 *Lunes Santo*의 행렬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이야기



최진혁 신부

뉴올리언스 한마음 한인성당, 루이지애나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낯설었다. 그러나 곧 이해가 되었다. 자주 흔들리는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교리 속의 분이 아니라, 무너지는 집과 두려운 밤을 함께 지나 주시는 분이였다.

페루에서 나는 선교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했다. 선교는 내가 가진 것을 일방적으로 주는 일이 아니었다. 선교는 먼저 그 땅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두려움을 듣고, 그들의 눈물과 기쁨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찾는 일이었다. 외부인의 눈으로 보면 낯설고 복잡해 보이는 신심도, 내부자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한 백성이 하느님께 다가가려는 간절한 길이었다. 고산지대는 내 몸을 무겁게 했지만, 그곳의 신앙은 내 마음을 깨웠다. 산소통 옆에서 살아가는 선교사 신부님의 밝은 얼굴, 성모님께 꽃을 바치는 사람들, 흔들리는 땅 위에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행렬. 그 모든 장면이 내게 말해주었다.

복음은 모든 민족의 언어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상처와 기억을 구원의 자리로 바꾸는 하느님의 힘이다. 오늘도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제들과 수도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신앙 공동체를 위해 기도한다.

박우상 요한 박사의 복음 영이

연중 제19주일

오늘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며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면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하시는 권능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아무 의심 없이 당신께 맡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그분께 맡기고 살고 있습니까?

마태오 복음서 Matthew 14:22-33

He came toward them [= his disciples] walking on the sea. When the disciples saw him walking on the sea they were terrified. “It is a ghost,” they said, and they cried out in fear. At once Jesus spoke to them, “Take courage, (1) it is I; do not be afraid.” Peter said to him in reply, “Lord, if (1) it is you, command me to come to you on the water.” He said, “Come.” Peter got out of the boat and began to walk on the water toward Jesus. But when he saw (2) how strong the wind was he became frightened; and, beginning to sink, he cried out, “Lord, save me!” Immediately Jesus stretched out his hand and caught Peter, and said to him, “O you of little faith, why did you doubt?” After they got into the boat, the wind died down. Those who were in the boat did him homage, saying, “Truly, you are the Son of God.”

예수님께서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 댔다. 예수님께서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 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disciple: 명. 제자, 사도] [terrify: 타동. ...를 두렵게 하다, 겁나게 하다] [ghost: 명. 유령, 귀신]

신] [courage: 명. 용기] [afraid: 형용. 두려워하는, 겁내는] [reply: 명. 대답] [command: 타동. 명령하다] [sink: 자동. 가라앉다] [immediately: 부. 즉시로] [stretch out: 밖으로 뻗치다, 내밀다] [faith: 명. 믿음, 신앙] [doubt: 자동. 의심하다] [die down: 가라앉다, 잠잠해지다] [homage: 명. 경의, 존경]

(1) It is I. (나다):

영어에서 (흔히 be 동사 뒤에서) 주어를 설명하는 소위 주격보어는 대명사인 경우 이 문장에서처럼 주격 (I)을 사용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표준 어법이었으나, 현대 영어에서는 종종 목적격 (me)이 사용되며 이 경향은 구어체에서는 더욱 현저하다. 즉, 구어체와 일상체에서 It/That’s me (him, her, us, them). (그것은 나/그/그녀/우리야) 라고 목적격을 사용하는 경향은 현저하다.

[예문] Look at my hands and my feet, that it is I myself.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 루카 24:39)

[예문] They began to be distressed and to say to him, one by one, “Surely it is not I?” (그러자 그들은 근심하며 차례로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 마르 14:19)

[예문: 현대 영어에서 주격보어로 목적격이 사용된 경우]

[예문] Harry (to Sally): Hi, it’s me. It’s the holiday season, and this is the season of charity and forgiveness. [When Harry Met Sally (1989년 영화)] (Harry (Sally에게): 안녕, 나야. 연말 휴일철이야, 글구 이제 자선과 용서의 계절이야.)

(2) He saw how strong the wind was. (그는 바람이 얼마나 센 지를 보았다):

이 문장은 He saw _____. (그는 _____를 보았다) + How strong was the wind? (그 바람은 얼마나 센니까?) 두 문장이 결합된 결과이다. 이렇게 의문문이 더 큰 문장의 한 부분으로 들어갈 때에는 의문문에서 사용되는 ‘be 동사/조동사/do 조동사 + 주어’의 도치 어순이 ‘주어 + be 동사/조동사/일반 동사’의 정상 어순이 된다.

[예문] He will say to you in reply, “I do not know where you are from.”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 루카 13:25) [= I do not know _____. + Where are you from?]

[예문] I know who you are - the Holy One of God!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 마르 1:24)

믿고 함께 하는 감동의 순례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MARIA TOUR



성 프란치스코 회년 기념 이탈리아 중남부 성지순례	
2026년 9월 21일 - 10월 2일 (11박 12일)	\$ 4,500
지도사제 - 이상선 요셉 신부님	M시대 첫 성인 카를로 아쿠티스 참배
로사리오 성월 크로아티아 드보르브니크+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 품으신 땅으로!	
2026년 10월 3일 - 10월 10일 (7박 8일)	항공 + \$ 1,800
지도사제 - 이병근 대건안드레아 신부님	
한국 성지순례 국제선 별도, 국내선 (김포-제주-부산) 포함	
2026년 10월 12일 - 10월 23일(11박12일)	항공 + \$ 2,600
지도사제 - 문창호 미카엘 신부님	나의 신앙 그 뿌리를 찾아서 한국 성지 순례

서유럽·발칸·메주고리에 성지순례	
2026년 10월 12일 - 10월 23일(11박12일)	항공 + \$ 3,000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적 성지를 함께, 서유럽과 발칸을 함께하는 특별 일정 메주고리에 중심의 깊은 기도과 전례 참여	원해 도착 → 팔츠부르크 → 슬로베니아 → 크로아티아 → 메주고리에
성탄절 특별 순례 프랑스·스페인 가르멜 영성 여정	
2026년 12월 17일 - 12월 28일 (11박12일)	항공 + \$ 3,300
지도사제 - 윤주현 베네딕도 신부님	
2027년 이탈리아 순례	
2027년 4월 5일 - 4월 14일 (9박 10일)	\$ 4,200